



보도시점 2024. 4. 9.(화) 14:00 배포 2024. 4. 9.(화) 10:00

## 금융위, 핀테크 투자 생태계 활성화 나선다

- 김소영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하여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현장의견 청취

‘24년 4월 9일(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투자 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관 및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 일시·장소 : '24.4.9일(화) 14:00, 여의도 한국성장금융 11층 대강당
  - 주제 : 핀테크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
  - 참석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혁신과장
    - [유관기관] 한국성장금융,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 [투자기관] KB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서울대기술지주, 인포뱅크
    - [핀테크 업계] 핀테크 기업 6개社\* 대표
- \* 루센트블록, 센트비, 큐드마이어, 큐터백그룹, 트레블월렛, 해빗팩토리 (가나다순)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원문 별도 첨부](#))을 통해, “장기화되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핀테크 기업의 현장 애로를 살펴보고,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번 간담회의 의미와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핀테크 투자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도 ①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를 창출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하여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실화, ③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돋겠다.”고 강조하였다.

유망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금융권 자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핀테크 혁신펀드」는 1호 펀드(‘20~’23)를 통해 4년간 총 5,133억원을 조성하고, 총 85개 핀테크 스타트업에 2,824억의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하였다. 1호 펀드의 잔여 투자재원은 향후 4년간 위탁운용사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금년부터 4년간(‘24~’27) 추가로 조성되는 2호 펀드 역시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를 통해 「핀테크 혁신펀드」는 8년간(‘20~’27) 총 1조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리아 핀테크 워크 2023」에서 체결된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23.8.30일)>을 계기로 한 2호 펀드에는 기존의 금융권 및 유관기관에 더해 빅테크 기업(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도 모펀드 출자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2호 펀드는 올해 위탁운용사 선정 등 조성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첫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핀테크 혁신펀드」 2호 펀드는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했던 1호 펀드와 달리, 투자대상을 ①초기단계, ②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사업화) 단계, ③해외진출을 통한 스케일업 단계로 세분화하여, 핀테크 기업의 성장주기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사업을 고도화·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성장금융은 「핀테크 혁신펀드」 피투자 기업들이 금융회사·빅테크 기업과의 B2B분야 협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후속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지원도 강화한다.

## <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실적 및 성장사례 >

◆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 (1) 핀테크 혁신펀드 1호 펀드 투자실적

- 1,500억원 모펀드<sup>1)</sup>에 민간투자를 매칭하여 4년간('20~'23년) 총 5,000억원 조성 목표  
→ '24.3월말 현재 총 5,133억원 조성<sup>2)</sup>, 총 85개 핀테크 기업 2,824억 투자 완료
  - 1) 금융권 출자자금 1,200억원 + 성장사다리 펀드 300억원
  - 2) 성장금융 모펀드 1,655억원 + 민간자금 3,478억원

### (2)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기업 성장사례

- T社<sup>\*</sup>는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당시 기업가치\*\*가 850억원이었으나('21.9월), 투자 이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비자(VISA) 카드의 최고 등급 협력 라이선스인 '프린시플 라이선스(Principal License)'를 확보하는 등 최근 투자 유치시점 기준 ('23.11월)으로 기업가치 2,800억원으로 성장
  - \* VISA카드 등 충전방식의 소액 환전 및 해외결제,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
  - \*\* 투자 시점 Pre-value 기준, 최근 투자 유치시점 Post-value 기준
- S社<sup>\*</sup>는 '16.9월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가 65억원 수준이었으나, '19년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등 차별화된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최근 투자 유치시점 기준('22.9월)으로 기업가치 1,486억원으로 성장
  - \* 개인용 소액 해외송금 및 기업용 해외결제 핀테크 서비스, 글로벌 정산 API 솔루션 제공
- Q社<sup>\*</sup>는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당시 기업가치가 480억원에서('21.10월),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및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국정원,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 다양한 국내·외 고객에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여 최초 투자 유치시점 기준('23.11월)으로 기업가치 720억원으로 성장
  - \*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풀패킷으로 저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 제공
- 이 외에도 성공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유치, 유관기관 협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보육기관 연계, 판로개척 등을 지원 중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등 간담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은 최근 보수적인 투자기조가 확산되고, 전반적으로 핀테크 분야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투자기관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점점 활발해져 가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의 서비스 테스트 등 사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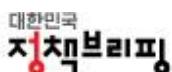
핀테크 기업들도 투자유치·대출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였다. 특히, 최근 고금리의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매출 규모 등 현재가치에 중점을 둔 투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은 표면적인 지표관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 투자 의사결정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허성무 대표는 「핀테크 혁신펀드」의 추진 현황과 사업계획을 공유하면서, “성장가능성을 지닌 핀테크 기업들에 투자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핀테크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투자기관이 서로 원-원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하고, 핀테크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이석란 (02-2100-2530)
	금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정수종 (02-2100-2535)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성장금융실	책임자 담당자	실장 노해성 (02-2090-9150) 팀장 이명근 (02-2090-910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1. 핀테크 혁신펀드 1호 운용현황

- **(개요)**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운용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 후속조치('19.12월 발표)

### < 핀테크혁신펀드 운용구조 >



- **(운용현황)** 4년간('20~'23) 5,000억 원 조성·투자 목표

→ 총 5,133억 원 조성, 133개 기업에 총 3,245억 원 투자완료('24.2월말)

- **(조성)** 금융권 출자금액으로 조성된 1,655억 원(27.7%)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금 3,478억 원(67.8%)을 매칭하여 핀테크 전문펀드 13개 결성완료
- **(투자)** 총 3,245억 원 중 핀테크 기업 투자는 2,824억 원(85개 기업)이며, 업력 7년이하 등 초기기업에 1,703억 원 투자(97개 기업)
  - ⇒ 투자 마중물 역할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 2. 핀테크 혁신펀드 2호 사업계획

- (개요) 핀테크 기업의 연속적인 투자지원을 위해 4년간('20~'23) 0.5조원에 이어 향후 4년간('24~'27) 0.5조원 추가 결성  
※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22.12월 발표)  
→ 8년간 총 1조원 확충 목표
- (조성현황) 유망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지속
  - ('23. 8월)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3.12월) 금융기관, 빅테크 등 출자검토 및 승인절차 실시  
\* KB·NH·신한·우리·하나·BNK·DGB, D.CAMP·코스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 '23.1Q부터 핀테크혁신펀드 2호 사업 실시
- (투자사업) ①초기단계 투자를 유지하면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②사업화단계 투자 확대 및 ③해외진출 지원 강화
  - ① 초기단계기업(~Series A 또는 7년 이내 창업도약기)이 핀테크 분야에 진입하여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 투자전문성을 보유한 AC, Micro VC를 활용
    - ⇒ 핀테크기업의 지속적 유입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 확장에 기여
  - ② 기술력·혁신성을 인정받아 초기투자를 유치한 핀테크 기업이 본격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후속투자(Follow-on)펀드 운용
    - ⇒ 기존 B2C중심 사업모델을 넘어 B2B·B2B2X 등 금융기관, 빅테크 등과의 사업협력을 지원하여 성장발판을 제공
  - ③ 국내 핀테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시장 이해도가 높은 운용사를 발굴
    - ⇒ 고객Pool 확장을 통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운용사를 통한 교두보를 마련